

# 전남 농지은행 매입률 전국 1위...273ha 대기

접수 면적 40.7% 미처라...약 5.5개월치 물량  
정부·공사 연간 계획 차이...집행 실효성 도마

전남지역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매도를 신청한 농지 가운데 40% 이상은 여전히 매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지 매입 확대를 추진중인 가운데 실제 집행기관의 연간 계획과 차이가 드러나면서 농지 정리가 필요한 소유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예산과 매

입 기준, 집행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남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접수면적은 671ha, 실제 매입 면적은 398ha로 집계됐다.

매입률은 59.3%로 전국 평균 37.9%보다 21.4%p 높았으며,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남의 매입 대기면적은 273ha로, 전체 접수면적의 40.7%를 차지했다. 올해 1~8월 월평균 매입면적이 약 50ha인 점을 고려하면 약 5.5개월치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는 접수면적 5345ha로 이중 올해 8월까지 2025ha가 매입됐고, 나머지 3320ha는 대기 상태였다. 전국 대기면적은 올해 월평균 매입실적 기준 약 13개월치에 달했다.

전남은 상대적으로 매입이 빠르게 진

행됐지만 전국적으로는 적체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올해 전남의 매도수요를 869ha, 연간 매입면적을 727ha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연말 대기면적은 142ha로, 지난해 말 이월면적 213ha보다 71ha, 33.3% 줄어든 전망이다.

반면 전국 매도수요는 6920ha, 연간 매입계획은 3700ha로 제시됐다. 계획을 모두 집행하더라도 연말 대기면적은 3220ha로, 지난해 말보다 269ha, 9.1%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발표와 공사의 집행계획 사이에도 차이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지난해 9625억원에서 1조6170억원으로, 매입물량은 2500ha에서 4200ha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연간 매입계획은 3700ha로, 정부가 제시한 물량보다 500ha 적었다.

농지은행에 매도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의 자격과 소유기간, 토지 이용지역, 권리관계, 면적, 지역별 매입상한단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진출입이 어렵거나 황폐화된 매입 후 임대가 곤란한 농지도 제외 대상이다.

신장식 의원은 “농식품부는 4200ha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집행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계획은 3700ha”라며 “500ha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정부의 4200ha가 실제 집행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성 농지는 엄정하게 관리하되, 은퇴·상속·전수조사 이후 정상화와 지적정리를 요구하려면 정부가 제시하는 출구도 실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농지은행의 매입물량과 예산, 지역별 집행격차와 매입기준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 여수제조업 4분기 전망 개선...석유화학은 악화

BSI 65.6으로 3.8p 상승...석유화학 10.5p ↓ 50.0

여수지역 제조업체들의 올해 4분기 경기 전망이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본격적인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연관 업종의 경기 전망은 악화한 반면 일반업종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업종별 체감경기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수지역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 제조업체 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BSI)'에서 종합 BSI는 65.6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전망치 61.8보다 3.8p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BSI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면서 4분기에도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개선을 예상하는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망이 엇갈렸다. 석유화학연관 업종의 4분기 BSI는 50.0으로 전분기 60.5보다 10.5p 하락했다. 반면 일반업종은 85.7로 전분기 63.3보다 22.4p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BSI 상승은 지역 제조업 전반의 경기 회복보다는 일반업종의 경기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화학연관 업종의 전망 악화는 여수산단을 둘러싼 업황 부진과 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기업들의 설비 조정과 감소 움직임 등이 생산과 투자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플랜트 정비·건설·운송 등 연관 업종의 수주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주요 기업들의 대정비가 이어지면서 정비·보수 분야를 중심으로 일감과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단기적으로는 대정비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일반업종은 상대적으로 경기 전망이 개선됐다. 4분기 지역 내수와 계절적 소비, 방문 수요 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BSI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여수상의 분석했다.

일반업종 역시 기준치 100에는 미치지 못해 본격적인 경기 회복보다는 그동안의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업들의 실제 경영 여건도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영업이익이 당초 계획한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전체의 59.7%에 달했다. 이 가운데 37.1%는 '10% 이내 일부 미달'을, 22.6%는 '크게 미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와 한국서부발전주는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발전회사협력본부에서 '육상풍력사업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전남개발공사-서부발전, 육상풍력사업 활성화 ‘맞손’

### 전남광주 신규 사업 발굴·지역상생 협력

전남개발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이 전남광주지역 육상풍력 사업 확대에 나선다.

5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주)(사장 이정복)과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발전회사협력본부에서 ‘육상풍력사업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2030년까지 78GW → 100GW)에 부응하고 호남지역 반도체 펌 등 향후 증가하는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비해 조기에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 공급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면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의 육상풍력 자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규 육상풍력사업 발굴 및 참여 검토 △지자체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확보 △기술성·경제성 및 사업성 검토 △발전사업허가·계통연계·EPC 등 기술협력 △주민참여 및 이

함께 나선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기반의 개발사업과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며 축적한 지자체·지역사회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발굴과 지역수용성 확보에 힘을 보태고,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사업 전반의 사업개발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성 검토와 기술 분야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남·광주지역의 육상풍력사업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중기 해외지사화 지원 확대

20여곳 추가...참가비 최대 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통합특별시는 올해 20개사 내외를 추가 지원하고, 기업별로 최대 2개 해외무역을 활용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업 참가비도 최대 80%를 지원해 해외마케팅에 나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해외에 자체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수출상담, 전시·상담회 참가, 현지 유통망 발굴 등 현지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기존 지원대상을 옛 전남지역 기업까지 확대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바이어 발굴과 시장조사, 현지 마케팅, 수출상담, 계약까지 연계하는 수출 지원체계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가 보유한 세계 80개국 124개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별 수요에 맞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비용 부담은 낮추고 수출 활동에 집중하도록 체감도 높은 해외마케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hoibul@gwangnam.co.kr

UNIVERA SUPERGEL MAX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슈퍼겔 맥스**

<태양의 알로에>나뭇잎  
피부/장 건강은 기본, 면역의 중심까지 한번에

|                    |          |
|--------------------|----------|
| 1호 1kg(902mL)×9병   | 135,000원 |
| 2호 150g(144mL)×10병 | 75,000원  |
| 다량스 1kg(902mL)×12병 | 490,000원 |

신약물상자(제1주) 23년 연속 세계의약품상 선정(2003-2025년)  
1일 1회 1회 300mg 복용  
\*국내 최대 1일 1회 300mg 복용(미국 FDA 기준)  
원료: 제1주 국제 특허에 의해 100% (ASCO)에서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3종 기능성 인정

- 면역력 증진
- 장 건강 개선
- 피부 건강 케어

☑ **간 건강이 염려되는 분**  
알코올·주요 약물·주요 질환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설계 지체와 자주 간의 피로를 느낀다면**  
평상에서 간 건강을 케어함으로써 간이 피로한 환자(간염)에게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                        |                         |
|------------------------|-------------------------|
| 구성 및 가격                | 설치 방법                   |
| 3개월 / 540캡슐 / 370,000원 | 1일 3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

“**하식이 장은 편이라 꼭 챙겨 먹는 제품이에요!**”

남양 931 플러스  
알코올·주요 약물·주요 질환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관리하는 간 건강

간은 건강을 지키는 관문입니다. 무력 지체와 간의 피로를 느낀다면 남양 931 플러스로 미리 미리 간 건강을 케어하세요.

**uniVera 유니베라**

**유니베라 남양 알로에 상무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7,7층  
(상무역 지하철 4번출구)  
문의: 062.373.0058 대표이사 신영승